

세상으로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하는 진해장애인복지관

# 바지랑대

빨래를 널면 그 무게 때문에 축 늘어지는 빨랫줄을 다시 돌우어 올리는 긴 장대를 말합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삶을 살아가는 힘을 다시 돌우어 희망과 용기의 장대 '바지랑대'가 되고자 합니다.

발행일 2017.10 | 발행인 이흥우 | 기획 및 편집 우소정  
주소 5162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번지 (풍호동 1번지)  
전화 055) 540. 0400 | 팩스 055) 541. 0400

# 모두 좋은 날이 됩니다.



김미선 상담사레지원팀 팀장

예전 한 드라마에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지역의 많은 분들의 삶이 딱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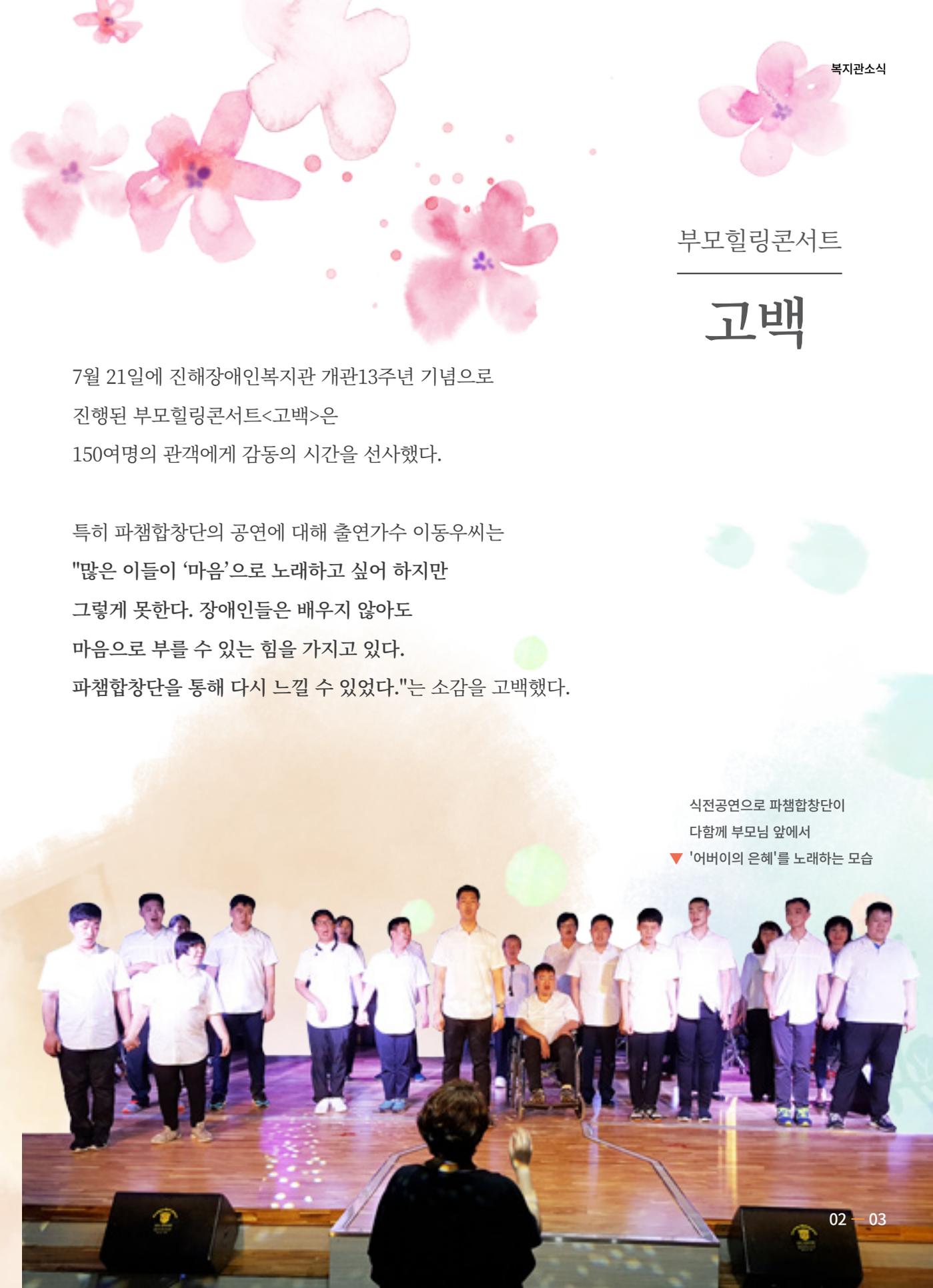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손에 있는 과자를 하나만 달라고 하면 언제나 작은 거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분들은 본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뿐이지 타인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즐기십니다. 어찌나 리얼한지 간혹 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세상과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사고와 표현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삶이 가끔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관계만 가질 수 있다면 오해는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법은 우리 모두에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고 함께 합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서툴지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 주고 받는 사이, 서로의 이웃으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어 갑니다. 지역의 많은 장애인분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동네에서 마주치는 분들과 서툰 인사를 나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그러면 함께하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좋은 날이 됩니다.



## 부모힐링콘서트 고백

7월 21일에 진해장애인복지관 개관13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부모힐링콘서트<고백>은 150여명의 관객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파챌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출연가수 이동우씨는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노래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 장애인들은 배우지 않아도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파챌합창단을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고백했다.

식전공연으로 파챌합창단이  
다함께 부모님 앞에서  
'아버이의 은혜'를 노래하는 모습



### 힐링 추억 프로젝트

## 제주도에서 우리 "서로 친해지길 바래"

이흥우 관장님의 전매특허 YEAH~!! 구호를 다 같이 외치며 그렇게 힐링 추억 프로젝트 제주도 여행이 시작 되었다. 제주도를 여행 하며 찍은 수많은 사진들과 아름다운 경치를 담았던 가슴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다. 많은 인원이 함께 했지만 철저하게 조원들과 함께 다니며 추억을 만들도록 했던 것과 그 안에서 융화가 되어 즐겁게 여행을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그리고 제주도에 오길 참 잘했다. YEAH~!!

- 일시** 2017. 09. 20(수)~22(금)
- 장소** 제주도 일대
- 내용** 진해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하는 제주도 문화탐방
- 인원** 총 98명 (이용자 57명, 보호자 7명, 직원34명)

### 이용자 어머니가 전하는 말

저희 친구들을 데리고 좋은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관장님, 국장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을 데리고 가려면 안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여행 잘 다녀오시고 덕분에 저희 엄마들에게도 특별한 휴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휴가 내기가 어려운데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재미있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친구들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서로 친해지길 바래”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 선물 해준 진해장애인복지관에게 감사합니다. / 직원 참여 후기

### 제주도 안녕! 취업지원반 윤경령

우리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신부님, 국장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부푼 기대감을 안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해지길 바래.’ 라는 주제라서 조를 짜서 갔는데 저는 4조였고 관광버스 1호차 팀이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복지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 수속을 밟아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늘 위로, 구름 위까지 날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인 제주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토끼와 거북이 식당에서 고등어조림 정식을 먹었고 저녁으로는 월랑식당에서 고기랑 새우 등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째날은 더원 호텔에서 식당 조식을 먹었고 점심에는 한정식을 먹고 저녁에는 해물탕을 먹었고 셋째날은 호텔 점심과 함께 정식을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먹은 모든 것들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다양한 체험도 했습니다 자연물휴향림, 제주돌박물관, 퍼시픽랜드, 주상절리, 박물관은 살아있다, 일출랜드에서 평소에는 잘 할 수 없었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긴 채 진해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셨던 관장님, 국장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입이 즐거웠던 다양한 먹거리, 눈이 즐거웠던 멋진 경관과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었던 제주도는 영원히 내 기억속에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p>제주도 여행은 어땠어요?</p> <p>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놀러가서 좋았어요. 그리고 밥이 맛있었어요. (이용자 신0정)</p>	<p>하고싶은 말이 있나요?</p> <p>선생님 제주도 같이 가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같이가요. (이용자 이0은)</p>	<p>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p> <p>돌고래 쇼를 보고 꽃길을 걸었던 곳이 좋았어요. (이용자 송0성)</p>
---	--	--

# 민들레울 바리스타 이준우

카페 민들레울은 민들레 울타리의 줄임말로, 뿌리가 굵고 깊어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민들레처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연한 직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바리스타 교육(훈련)을 하는 카페입니다. 이준우 바리스타는 16년 5월부터 카페 민들레울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이준우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카페 민들레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민들레울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커피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 즐거운 마음이 더 큽니다.

손님들이 고생한다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실 때 가장 기쁩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바리스타는 총 5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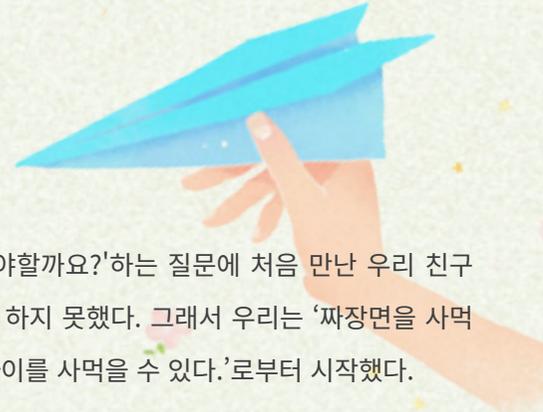
저희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오시는 분들은 꼭 카페 민들레울에 들러서 맛있는 커피를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 청년들의 꿈을 함께 디자인하는 ‘꿈자리’취업지원반을 소개합니다.

글 / 직업지원팀 취업지원반 김소미 사회복지사



▲ 꿈자리 취업지원반 현장체험 모습

‘직업을 왜 가져야할까요?’하는 질문에 처음 만난 우리 친구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고 초코파이를 사먹을 수 있다.’로부터 시작했다.

직업이 무엇인지 배우는 ‘직업인식교육’, 직무기술을 배우는 ‘직무교육’, 나를 응원하는 ‘자존감향상교육’,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미술심리교육’ 등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론공부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익히는 ‘현장실습’에 참여하였다. ‘나는 연리지뷔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생협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자동차를 매일 볼 수 있는 진일교통이 좋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천자봉로컬푸드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친구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배워가면서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하지 겨우 3개월이 지난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 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임♥범 (35세 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던 임♥범. 그래서인지 처음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은 임♥범은 담당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반 친구들과도 소통하지 않아 또래와의 사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심리를 통해 임♥범의 상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다독였다. 더불어 섬세하고 꼼꼼한 작업을 잘하는 임♥범의 강점을 응원하고 지지하였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임♥범은 이론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배웠고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임♥범은 취업지원반 c모둠의 리더가 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지만 묵묵히 친구들을 뒤에서 이끌어주며 멋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임♥범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돈 많이 벌어서 선생님 밥 사줄래요.'라는 글이 적힌 쪽지를 수줍게 내밀며 미소 짓는 임♥범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응원하며  
오늘도 취업지원반 친구들은 열심히 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나는 뷔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임♥호 (25세 남)

실습을 진행한 지 두 달 즈음 되었을 때 '저는 연리지 같은 뷔페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생각을 갑작스럽게 이야기 한 친구는 바로 임♥호였다.

체력은 약했지만 한 번 익힌 직무기술은 응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능력이 뛰어나고 꼼꼼하고 섬세한 손놀림은 뷔페에서의 직무활동에 딱 이었다. 실습을 통해 찾은 임♥호의 꿈을 응원했다. 그리고 지금, 진해 애슐리에서 취업을 목표로 지원고 용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점장님과 또래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일하는 임♥호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불렀다.

'임♥호씨~ 힘들지 않아요?'라는 내 질문에 ♥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 힘들어요! 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그래서 신나요.' 취업지원반에 들어온지 3개월 만에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게 된 임♥호의 미래를 응원한다!



### 우리와 같은 우리예요!

진해더연리지 아르바이트생일동

진해연리지, 행복중심생협, 곰메로컬푸드, 진일교통은 우리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꿈을 디자인해주는 참 감사한 꿈자리이다. 그곳에서의 실습을 앞두고 걱정 아닌 걱정이 생겼다. 비장애인과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하는 훈련이라 무리 속에서 배척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아니나 다를까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비장애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낯설다는 눈빛으로 처음 우리 친구들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실습을 시작한 두어 시간 뒤 그 친구들이 먼저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어요?'부터 시작된 질문은 '사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서 거리를

뒀는데 일하는걸 보니까 저희랑 다르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처음의 저보다 일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라는 스스로의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유명한 교수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우리친구들 스스로가 단 두어 시간만에 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무리의 우리가 되는 기적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부족 할 만큼의 감동을 받았다. 이 모든 기적들은 세상에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하는 복지관과 그 길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꿈을 꾸는 우리 친구들과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는 꿈자리 실습업체의 완벽한 하모니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 바지랑대에서 들려주는 진해장애인복지관 소식



### 1 개관13주년 기념행사 실시

서정수, 한보란 씨의 사회로 시작된 개관 13주년 기념행사! 무엇이 두현씨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는지, 촉촉이 젖은 두 눈으로 관장표창을 수여받은 모습 속에 잔잔한 감동이 함께 한 날이었습니다.

### 2 지역나눔행사 - 다함께 차차차

6월30일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총출동하여 복지관에서 직접 구운 빵과 음료를 나누었습니다. 이른 시간 다소 피곤해 보이던 학생들도 응원의 메시지와 작은 선물에 환한 미소로 답해 주었습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 3 햇빛촌 연극단 '제2회 생명콘서트' <아우성> 초청 공연

지난 7월 1일(토) 19시 10분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햇빛촌 연극단의 <아우성> 공연이 열렸습니다.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이 시작되면서 웃음소리와 박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연극단원 임춘섭씨는 “이번 공연은 최고였습니다. 공연을 위해서 희극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연극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습한 만큼 잘되어서 오늘은 기분이 최고입니다.”고 소감을 표현했습니다. 햇빛촌 연극단은 지역 어느 곳이든 연극의 울림을 위해 찾아갑니다.

-공연문의 : 가족문화지원팀 055) 540. 0431



### 4 웅동마을공동체 창립 총회

지난 7월 19일(수) 17시~18시 30분에 웅동2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웅동나눔장터 창립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창립총회는 ‘웅동나눔장터’ 마을 주민 활동가들이 “웅동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게 됨에 따라 나눔장터에 국한되어 있던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웅동지역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 5 2017 장애이해학교 실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일 ~ 10일까지 3일간 장애이해학교가 진행되었다. 자원봉사자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체험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이해학교에 참여한 청소년이 “처음에는 장애인이 그냥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애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6

### 청소년 인권서포터즈 교육

8월 19일 오전 10:00~12:00 까지 청소년인권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편의 시설 실태 조사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지 기준표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며 “버스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휠체어 이용공간 등” 기준표 만들기에 참여 하였습니다. 9월 부터는 우리가 만든 기준표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6



7

### 종이비행기 가족캠프

9월2일 진행된 종이비행기(메르세데스 벤츠 지원사업 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 가족캠프에 8가족이 참여하였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아동들은 “(장애를 가진) 누나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 “밖이라서 그런지 가족끼리 더 챙겼던 것 같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향후 가족캠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7



9

### 10 장애인식개선

9월 17일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다시 꾸는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강원래씨의 강의로 이뤄졌습니다, 강원래씨는 2000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이야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지 못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탈 뿐”이라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봐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교육을 함께 한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을 보조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며 “그러나 강원래씨의 강의를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결심을 했다” 고 하시고, 진해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업 담당하는 저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자신의 업무에 더욱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8

### 8 이용자 자치위원회

이용자자치위원회가 9월 25일 방과후 교실에서 열렸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5명의 위원은 주인된 삶을 지향하며 이용 당사자로서의 복지관에 대한 바람을 토론했다. 자기표현이 서툴지만 좋은 환경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자는 마음은 순수하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다.

## 장애청년 부모 자조모임 <함께걸음> 기관 견학 '거제 애광원'

# 9

지난 9월 15일(금) 10시 거제 애광원으로 자조모임 어머니 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애광원 시설 견학을 통해 장애 자녀의 취업 및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조모임의 견학활동에 참여한 어머니는 “애광원 시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너무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애광원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견학활동 뿐 아니라, 아름다운 거제 경치를 보며 점심과 차를 마시고 돌아와서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10



10



## 고운 손길을 나누어 주신 분들

신규자원봉사자 박신희, 이광배, 박하영, 이민수, 문정빈, 이상은, 박혜린, 오서연, 유정현, 정예진, 김예진, 이수경, 김현지, 홍해원, 신혜영, 이채윤, 조현근, 박수진, 김준희, 황진환, 강태웅, 강민수, 박민서, 박해원, 전은정, 박지원, 김도훈, 이승수, 이시현, 권나연, 강나경, 서윤혁, 하태훈, 서정민, 이서영, 기가영, 배경덕, 고영석, 전수정,곽현수

청소녀어울림마당 석동중 사프론, 남중 사프론

꽃보다 이웃 박혜련, 정기순, 소망교회, 경화성당레지오

나눔의 날 필로스, 새마을부녀회진해지구, 아이코리아, 경남사프론진해지구

사계절 김치담기 한화테크윈, 바르게살기운동진해구협의회

재가장애인 전기 점검 봉사 한국전력공사 진해지사

여성장애인생산물 제작을 위한 미싱봉사  
 최춘옥, 이미래, 박재은, 황선실, 천경희, 김부경, 안현희

운동나눔장터 진행 및 진행보조 청소년인권서포터즈

장애청소년 방과 후 교실 박혜련, 강하나, 김순곤

방과후 요리교실 진행 해찬솔봉사단

직업적응훈련반 청년 장애인대상 요리교실 진행 한국암웨이

공동생활가정 대청소 김미진

복지관 환경미화 이시준

재가장애인 가사도우미 경화성당 찬성하울동정녀

직업지원팀 일손돕기 지원 진해여고 경찰동아리, 배수예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 바르게살기진해구협의회여성회, 진해 남중사프론, 진해경찰서곰메동아리

아동발달지원센터 수중심리운동 및 그룹수중치료 대체프로그램 진행보조 김은희, 김희진

프로그램실 청소 및 직업지원팀 작업보조  
 정비창봉사단, 해군기지사령부, 해군특수선박운동대,  
 중앙고사프론, 해군81전대 5훈련단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어린이요리특강보조 - 박진경, 이수빈, 이나현, 배시연, 배인화,  
 이지우, 이수빈, 하은혜, 조기민

책임기봉사임소진  
 놀이방청소-이승혁

아장방견학프로그램 해찬솔

아장방/동화읽기 김현령, 배진희, 박가영

민들레울 바리스타보조 바리스타봉사단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식당정리·정돈 공알봉사회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토요요리특강 배진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검도교실 - 이성남, 배봉수

구연동화 - 송미진

기초학습 - 신미정

난타교실 - 정수련, 웅동적십자

레크스포츠 - 장영희, 노영환

요리교실 - 해찬솔

운동노래교실보조 - 성명숙